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대표작	3

향수

넓은 벌 동쪽 끝으로
옛이야기 지절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
얼룩백이 황소가
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.
-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.

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
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,
얽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
짚 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,
-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.

흙에서 자란 내 마음
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
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
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,
-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.

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
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
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라
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
-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.

하늘에는 섞은 별
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,
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,
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,
-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.

GANGJIN

Web Contents

